

# 중국의 제도 변화가 중국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윤테 부경대학교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 중국, 역사적 제도주의, 노동제도, 후커우 제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 I. 서론

중국의 노동자 집단은 개혁개방 이후 단위체제의 종신고용 폐지, 노사관계의 자유화 등 가장 두드러진 신자유주의적 전환(백승욱 2006, 444)을 경험하였고, 개혁개방의 패자가 되었다. 중국의 노동계급은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의 착취대상이 되었으며 중국공산당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전락하였다. 중국의 노동계급은 왜 개혁의 패자가 되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의 답을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에 있다고 보고서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노동제도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단위제도에서 분절화되고 개인화된 신자유주의적인 제도로 변화하였고, 이는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노동착취의 환경으로 내몰았다. 개인의 최대이익 추구라는 합리적 선택이 제도 변화를 결정한다는 다원주의 관점에서 중국 노동계급이 불합리한 제도 변화를 받아들인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의 노동제도는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연관되고 사회주의와 시장주의가 혼합된 중국적 특징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 위기,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요인과 이들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야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마다 상이한 정책을 설명하는데 개별변수의 특성이나 단일 원인론적인 설명이 아닌 제도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하연섭 1999). 이러한 제도의 관계적 측면은 행위를 결정하지 않고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적 제약 요건 하에 있더라도 다른 행위가 나올 수 있다(Immergut 1996, 25-26; 하연섭 1999, 18). 제도적 상하 연결 관계가 비교적 긴밀하여 하나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경우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이준호·정윤길 2010, 1139). 따라서 제도의 관계적 측면과 다양한 영향력을 통해 제

도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분석하고, 노동자들을 권력에서 배제한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노동계급이 개혁의 패자가 된 원인을 노동제도의 변화로 보고 있다. 중국의 노동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에 따라 노사관계가 급격하게 자유화되고, 후커우(戶口) 제도에 의해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이념사상은 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체제 전환은 실험식 개혁과 점진적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한 시기의 제도에는 각기 다른 시기에 형성된 이질적 요소가 중층적으로 구성된다(이문기 2014, 190). 중국의 노동제도 역시 고용관계의 신자유주의화라는 실험식 개혁과 이중노동시장의 점진적 개혁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는 신자유주의화라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노동시장은 후커우 제도로 이중화되어 점진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념은 실험식 개혁과 점진적 개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들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단절된 균형모형(model of punctuated equilibrium)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개념을 통해 점진적 변화를, 그리고 아이디어(ideas) 및 제도의 중층화(institutional layering)를 통해 촉발 동인과 제도 내부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의 노동제도는 세계화와 경제위기라는 외생적 요인의 영향으로 노사관계의 자유화라는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고, 자본가-기업의 권력관계라는 내생적 요인의 영향으로 이중노동시장 형성과 유지라는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보였다. 중국공산당의 이념사상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제도 내부에서 미시적 변화가 중층적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변화한 이념은 제도 변화를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노사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Locke and Thelen 1995; Locke and Kochan

1996; Katz and Darbshire 2000; Traxler et al. 2001; Wailes et al. 2003). 이처럼 노동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틀로서 역사적 제도주의가 가지는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정규식(2017, 2019)외에 찾기 어렵다.<sup>1)</sup>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II장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 변화에 대한 이론과 관련한 개념들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지도자별로 중국공산당의 지도 사상이 보인 미시적인 변화를 분석하였고, 제도 변화의 동인으로서 이념사상이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중국노동자계급의 배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다.

## II.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단절된 균형 모형으로,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로의존성으로, 제도 내부의 미시적 변화를 제도

---

1) 관련한 국내연구는 정규식(2017, 2019)을 제외하고 거의 찾기가 어렵고 중국 학계의 연구는 鲍晓鸣(2017)가 있다. 鲍晓鸣(2017)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중국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노사관계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국내연구에서 제도를 제약하거나 지속,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중국공산당의 이념, 사상체계를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김윤권(2008), 이흥규(2011), 이성춘 외(2012), 이문기(2014), 서상민(2015)이 있다. 김윤권(2008)은 중국 중앙정부의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흥규(2011)는 중국기업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 역사적 제도주의를 제시하였다. 이성춘 외(2012)는 중국 전신규제정책의 변화과정을, 이문기(2014)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국가정체성을, 서상민(2015)은 중국 계획경제제도의 변화과정과 경제관료의 권력관계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중국공산당의 이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의 중층화로, 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을 아이디어(이념)로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위 개념들을 파악하고, 중국에 적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수립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광범위하고 거시적이며(Hall 1986, 19), 행위자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면서 행위자 간 권력관계를 구조화(Thelen and Steven 1992, 17)하기 때문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관계적 측면과 역사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맥락을 분석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분석은 특정 시기, 특정 국가에서 특정 제도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각 제도는 담지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과 권력관계가 달라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정치 권력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균등하게 변화하지 않는다(서상민 2015, 26). 초기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권력 계급이 이익 추구, 권력 유지 등의 목적으로 기존제도가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한다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결정론(institutional determinism)’의 오류에 빠져 제도 변화의 인과기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Ikenberry 1988; Thelen and Steinmo 1992; 구현우 2009, 45).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는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급격한 제도 변화나 새로운 제도형성이 나타난다는 단절된 균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단절된 균형 모형에 의하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제도는 전쟁, 공황과 같은 외생적 사건에 의하여 촉발된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s)’에서 기존 경로를 벗어나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Krasner 1984; 구현우 2009, 46). 그러나 제도 변화의 원인을 외생적 요인으로만 보는 시각은 제도 변화의 내생적 촉발요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의 원인을 제도 내부의 모순과 한계, 행위자의 이념변화와 전략적 선택에서 찾았다. 이러한 제도 내부의 변화는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구성 요소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재배열되는 형태를 취하고 미시적으

로 나타난다(이문기 2014, 189). 따라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제도가 점진적이고 지속해서 재배열되는 제도의 중층화가 나타난다. 역사적 변화에 따른 미시적 변화가 순차적으로 겹쳐지면서 이데올로기나 이념과 같은 개념적 틀인 아이디어가 틀 짓기, 프레임 짓기 등의 방법을 통해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제도주의는 초기 제도의 제약과 지속성이라는 경로의존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외생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관심이 변화하였고, 이들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생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방향을 발전시켜 나갔다(김태운 2015, 80). 그리고 이러한 연구변화는 각 관점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렴된 분석 틀로서 구축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통제와 단단히 결합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점차 더 수용하는 특수한 유형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데이비드 하비 2007, 150; 박선화·임석준 2021, 164). 이것은 정부의 통제와 시장화가 혼합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고 중국공산당의 이념사상을 통해 변화의 정당성이 강조되었다. 중국의 노동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는 신자유주의화 되고 이원화된 노동시장,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통한 정당성 강조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분석한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는 급격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라는 이념이 이들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화에 영향을 끼쳤고,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는 이중노동시장 형성과 지속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정당화하였고 결국 노동계급의 배제와 주변부화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Ⅲ. 노동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를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 제도 내부의 미시적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제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노동제도의 변화를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이원화된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여 노동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 1.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제도개혁은 시장경제의 법적 규제환경을 마련하였지만, 중국의 일부 사회집단들의 희생도 초래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에서 도입된 회사법, 노동법, 샤강(下崗) 등으로 인해 중국의 노동시장은 종신고용의 형태가 점차 줄어들고 고용과 해고가 유연해진 노사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비교적 특권층이었던 국유기업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파산한 기업을 떠났으며 이것이 정점에 달했을 때 도시 실업률이 10%에 달했다(베리 노튼 2020, 107; 박선화·임석준 2021, 163). 농촌에서도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농업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기업들(TVEs)들이 창출되면서 기업주의, 유연적 노동관행, 개방시장경쟁이 만들어졌다(Harvey 2007, 156).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전형적인 기업적 견해를 밝히면서 노골적인 이윤추구 행위를 시작했고, 향진기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활기를 띠었지만, 향진기업 노동자들은 소득이 낮았고, 도시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와 근로조건을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 잔업과 초과성과급에 매달렸다(김현석 2017, 174; 박선화·임석준 2021, 163). 당시 향진기업은 도시노동자들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밖에 있었고 노조는 거의 없었다(Leung 1988, 65; 김현석 2017, 174-175).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변화는 미비한 국가규제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이는 법률적 규범이

불충분하고, 노동과 (국가)자본 간의 상대적 균형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없었다는 점을 반영한다(임운택 2015, 122). 중국에서는 국가가 저임금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것은 아주 빈번하게도 기업의 관련 위법행위에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달성되었다(토마스 텐 브링크 2016, 207). 기업의 권력 강화와 이에 대한 국가의 협력, 효과적인 노동제도 미비는 노사관계를 자유화시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착취로 이어졌다.

1994년 제정된 중국의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제도로써 기존의 완전평생고용제 폐지의 근거가 되었고, 노동법 시행 이후 중국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가 노동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박선화 2017, 244; 박선화 2018, 192). 이는 노사관계의 자유화를 강화하는 법제도가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대규모의 저렴한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수출무역체제를 갖추었다. 이 체제는 임금 안정화가 대외경쟁력과 순수출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이 임금억제로 특화된다(바카로·하웰 2020, 328-329). 경제성장에 집중한 중국은 수출무역체제를 통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성장에서 국민성장으로, 선부론(先富論)에서 균부론(均富論)으로 중국의 성장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균형발전과 조화사회를 목표로 한 제도 수립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노동쟁의조정중재법(勞動爭議調停仲裁法), 취업촉진법(就業促進法), 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 등과 같은 노동법제들이 제정되었다. 2008년 제정된 노동계약법은 2000년대부터 중국에서 급증한 노동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분쟁의 원인인 계약고용 관계를 법제화하였다(박선화 2018, 197).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근로자, 하청노동 등이 증가하자 2013년 노동계약법 개정, 2014년 노무파견 임시규정(勞務派遣暫行規定)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무파견의 남용을 막고



자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신창타이 시대 진입 이후 중국이 취업과 고용에 대한 압력을 해결하고자 해당 규제들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박선화·모리나 2019, 372).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취업과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친기업적인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측면에서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제고는 이원화되고 분절된 노동시장 하에서 노동력의 수와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후커우 제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박선화·모리나 2019, 368). 후커우 제도는 도시와 농촌 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제도이다. 2000년대 이전 중국은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위해 도시와 농촌 간 노동력 이동을 완화하였지만 도시공과 농민공의 경계구분은 강력히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에는 도시공과 농민공으로 구분되는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구축되었고, 특히 농민공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 후커우 제도로 인해 농민공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최근 이러한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후커우 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박선화·모리나 2019, 375) 후커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도시이동 제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후커우 제도는 일부 또는 임시적인 완화 조치만을 보였다. 1990년대에는 농촌의 잉여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여 노동력 이동을 완화했고, 최근에는 후커우를 제공하거나 도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sup>2)</sup>

이러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지역발전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후커우 제도가 점진적인 변화만을 보이며 유지되는 원인은 제도 유지 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는 급속한 부의 축적으로 경제 권력이 강화된 자본가계급이 출현하였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화된 노동자, 농민계급과 자본가계급이라는 새로운 권력관계가 구성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도입하는 ‘이중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지만, 부와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고 이 과정에서 정치 관료와 경제기업가의 공생이라는 틀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신자본주의적 특징을 띠다고 볼 수 있다(장윤미 2010, 3). 이러한 소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관료와 경제기업가들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해 왔고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했다. 노동력 착취로 경제적 부의 축적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던 자본가계급에게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해체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화된 노사관계나 이중화된 노동시장처럼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길 원하였고 이것은 노동시장과 제도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잠재해 있음에도 불

- 2) 2014년 국무원은 농업인구의 도시화, 다시 말해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정착한 농업인구의 도시 시민화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2015년 ‘중앙 1호 문건(中央一号文件)’에서도 후커우 제도개선의 가속화를 강조하였으며, 2016년 9월 도시에 거주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약 1억 명의 인구를 도시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안(推动1亿非户籍人口在城市落户方案)을,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에서는 농업인구의 도시시민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지방정부들이 인재 도입을 위해 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후커우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2019년 국가발전위원회는 ‘현대화 도시권 육성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培育发展现代化都市圈的指导意见)’을 통해 노동시장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의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박선화·모리나 2019, 369-375).

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점진적 변화만을 보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의 이익과 권력관계로 인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후커우 제도의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노동법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최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 경로로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후커우 제도는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권력 계급에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었고 이는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지속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중국의 노동제도는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모두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 IV. 이념과 제도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시기, 특정 국가에 대한 제도의 지속과 변화, 내생적 촉발 동인을 파악한다. 본 장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사상이라는 제도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변화와 이것이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라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이념에 대한 변화를 지도자별로 분석한다.

##### 1. 중국공산당의 이념사상

1930-40년대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회주의국가 사상이론으로 삼고 중국혁명의 현실과 결합한 마오쩌둥 사상을 수립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추진하였다.<sup>3)</sup>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중국의 정체

3)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했지만, 중국 민족주의와 전통사상이 결합하면서 사실상 별개의 사상체계로 발전하였고, 마오쩌둥의 중국혁명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화(Marxification of Chinese)'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성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 중의 하나(김도희 2014, 13)이고,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이동규 2017, 182)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전통과 결합하여 중국화하였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중국공산당의 당장(黨章)이자 지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三個代表)’,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로 변화하였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체제 수용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sup>4)</sup>,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회주의식 용어로 재해석하고 합리화하였다(이동규 2017, 189). 이는 개혁개방 이전에 비판의 대상이었던 자본주의적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인식을 사회주의로 전환하고, 중국 특색으로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에 발표한 장쩌민의 ‘삼개대표’는 ‘선진적 사회생산력 발전’, ‘선진적 문화전진방향’, ‘전체 인민의 기본이익’을 중국공산당이 대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전체 인민의 기본이익’이다. 이 ‘전체 인민’은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권력 계급으로 등장한 자본가계급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착취로 비난하던 자본가계급을 농민, 노동자와 같은 계급으로 인정한 것으로 시장화 이후 발생한 권력관계의 변화, 즉 노동계급의 배제와 자본가계급의 권력화를 중국공산당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이후 대중과 유리되고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중국공산당이 자본가라는 권력 계급과 타협하고 집권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중국화(Sinification of Marxism)’라고 할 수 있다.(이문기 (2014, 198).

4)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서 ‘중국 특색’은 중국 현실(실제)과 전통문화(가치체계)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 정치제도에 자본주의 장점(시장경제, 이윤추구, 과학적 관리 정신 등)을 가미한 것을 말한다(김소중 2009, 176).

1978-2006년 시기의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계급투쟁노선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과정에서 나타났다(이동규 2017, 192). 덩샤오핑 시기는 자본주의 행위에 대해 중국 특색이라는 합리화와 사회주의라는 재해석을 목적으로, 장쩌민 시기는 자본가계급과의 타협과 인정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평등가치라는 공산주의의 중요 요소를 완전한 시장화, 사유화를 허가하는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이데올로기의 쇠락을 가져왔고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부패를 가속화시켰으며 정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낳았다.<sup>5)</sup>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물질주의 팽배, 노동착취,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어 가려진 것이었다.

2007년 발표한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은 ‘과학적 사회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복지, 민주주의증진,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성장 우선이 아닌 균형발전으로, 사회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 확보가 아닌 정권의 통치 강화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집권당으로서의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Zeng 2014; 이동규 2017, 193). 2017년 발표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전면적인 샤오강(小康)사회 완성, 사회주의 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건설적인 당으로 탈바꿈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을 공산당의 통치이념으로 이끌며 공산당의 당장과 국가 헌법에 따라 통치함으로써 중국의 안정적 발전과 대외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진호 2018, 69). 민생안정에 대한 집중과 중화민족의 부흥, 세계강국 건설이라는 애국주의를 강조하여 중국공산당의 통치 강화와 이에 대한 정당성 확

5) 王紹光(2007). 國家能力的重要一環: 濡化能力. <http://ww2.usc.cuhk.edu.hk/PaperCollection/Details.aspx?id=6785> (검색일: 2021/04/13); 김도희 2014, 15).

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007-2017년 시기의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시장개혁에 대한 대응과 합리화, 정당성 확보라는 이전의 목적에서 벗어나 중국공산당의 집권통치력 강화와 이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후진타오 시기는 성장발전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계급을 끌어안음으로써 거버넌스 확대의 정당성을, 시진핑 시기는 민생안정과 세계강국 건설을 통해 통치력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서 집권통치력 강화의 정당성 확보로 목적이 변화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큰 틀 하에서 초기 중국공산당 집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시장화에 대한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최근에는 통치력 강화의 정당성 확보로 목적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이념의 변화는 큰 틀에서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이 미시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의 미시적 변화들이 중층적으로 쌓이면서 이념이라는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 제도 변화의 촉발 동인으로서 이념의 역할

제도 변화는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려 해도 기존제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기존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행위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변화의 내부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념, 문화적 배경, 도덕가치관 등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이디어 혹은 이념,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틀 짓기, 프레임 짓기가 영향을 끼치는 데 활용된다. 이념을 활용한 틀 짓기는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였고 중국 노동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 당장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근간에 둔 국가 이데올로기를 발표한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시장경제체제 수용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성 확보, 집권 통치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경제체제전환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을 숨기고 반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 발생한 부작용을 고도성장으로 숨기고, 고도성장 이후에는 애국주의로 그것을 가린 것이다. 이처럼 해결이 아닌 회피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제도 변화에도 이러한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제도로의 변화를 정당화하고 이원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합리화를 이념적 틀로써 영향을 끼친 것이다. 개혁개방과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틀 짓기로서 정당화하고 애국주의를 동원하여 노동제도의 불합리한 변화를 수용하게 한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중국에서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투쟁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약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반발하여 국가에 대항하는 많은 시위가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통해 집단을 강조하고 민족과 국가를 지상의 가치로 여기게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도희 2014, 15).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후커우 제도에 의한 이중노동시장 형성이라는 노동제도의 변화에도 노동자의 반발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처럼 집단과 민족, 국가를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영향이다. 결국 이것은 노동제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피해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고 원활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중국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중국공산당의 이념은 마오쩌둥 사상에서 기원한 가치관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국공산당은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않는 존재로 인식된다. 중국공산당은 과도한 자본주의화에서 민생을 보호하고 서구에 대항하여 중화민족을 세계강국으로

성장시킬 혁명집단이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중국적 전통을 통해 민족을, 당 권력을 통해 국가를, 시장을 통해 국가의 부강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김도희 2014, 17).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국식 사회주의 정체성 이념은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호소하며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노동제도들을 수용하게 했고 이는 노동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 V. 결론

중국의 노동계급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에 많은 이바지하였지만 점차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고 결국 개혁의 패자가 되었다. 노동계급에 대한 이러한 배제는 중국의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노동제도는 급격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중국공산당의 이념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이다. 문화대혁명의 위기에서 중국을 구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선택한 중국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를 원했다. 1980년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시기가 종료되고 1990년 진입 이후 본격적인 시장화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의 변화를 강행하였다. 계획경제체제의 노사관계를 폐지하고 기업가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저임금과 근로자 권익을 억압하는 법적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후 2000년대 중반 노사 간 분쟁으로 집단쟁의가 급증하자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이원화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성장둔화에 직면한 중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약 20년의 세월 동안 노동법제의 큰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노동법이나 노동계약법처럼 중요한 제도 변화는 충분한 검토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그러한 과정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충분한 협의 없이 도입된 노사관계 자유화라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이다. 후커우 제도는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동을 제약하여 도시공과 농민공이라는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가져왔다. 후커우를 갖지 못한 농민공의 경우 저임금과 근로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졌다. 이처럼 이원화된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후커우 제도는 핵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점진적인 변화만을 보였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저임금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해 온 자본가계급,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정부 엘리트 관료라는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였다. 고용관계에서 권력이 약해진 노동자는 이원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새로운 권력 계급에 의해 권력관계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는 노동자의 배제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틀 짓기와 미시적 변화이다. 중국공산당은 앞서 언급한 제도 변화에 대한 수용 촉진과 반발 억제를 위해 정치이념 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활용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개혁개방과 신자유주의화 같은 변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나 노동시장의 이중화의 문제를 숨기고, 틀 짓기를 통해 애국주의에 호소하며,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심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이 제도 변화를 받아들이게 했다. 이것은 개혁개방, 시장화, 신자유주의라는 변화에 대한 거부와 반발이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원활한 수용을 끌어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이념은 정권 변화에 따라 미시적 변화를 보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근간에 두고서 시대 상황에 따른 내용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것이 중층적으로 쌓여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라는 목적

에서 통치력 강화와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동제도의 급격하고, 점진적인 변화와 이념의 틀 짓기 및 미시적 변화는 모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급격한 노동법제의 변화는 노동자를 개인화하고 분절화하여 경쟁으로 내몰았고, 후쿠어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는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열악한 노동환경 형성과 불평등 및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제도 변화들이 노동계급의 주변화와 배제를 만든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노동계급은 법적 권리를 가진 개인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공산당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노동계급의 주변부화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 나라가 경험한 현상이지만 사회주의체제 국가였던 중국의 경우 국가가 자본가와 연합하여 그것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신창타이 시대 진입 이후 중국은 이전과 같은 성장과 고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전의 눈부신 성장과 고용은 개혁개방에서 발생하였던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지만, 중국이 더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노동제도의 보완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현우. 2009.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2호., 37-72.
- 김도희. 2014.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에 대한 고찰: 중국 사회주의 정체성의 근원을 찾아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3권, 1-23.
- 김소중. 2009.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서석사회과학논총』 제2집 2호, 161-205.
- 김윤권. 2008. "중국 중앙정부 행위의 제도적 제약: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1호, 407-434.
- 김진호. 2018. "시진핑 집권 2기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분석: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집 1호, 57-88.
- 김태은. 2015.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경향과 비판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제49권 4호, 57-96.
- 김현석. 2017. "중국 이행기의 정치경제학: 권력자본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71권, 169-192.
- 데이비드 하비.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 바카로·하웰. 2020. 『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1970년대 이후의 궤적』. 파주: 한울아카데미.
- 박선화. 2017. "The Impact of Labor-Management Relation Changes in China on China's FDI Inflow." 『중국지식네트워크』 10호, 241-272.
- 박선화. 2018.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노동정책의 변화." 『중국지식네트워크』 11호, 175-206.
- 박선화·모리나. 2019.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노동시장정책 변화 분석 : 유연안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79권, 355-382.
- 박선화·임석준. 2021. "중국 자본주의체제 분석: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4권 1호, 153-176.

- 베리 노턴. 2020. *중국경제: 시장경제의 적응과 성장*. 서울: 한티에듀.
- 서상민. 2015. "대약진운동 시기 중국 계획경제제도의 동학과 경제관료: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25-46.
- 이동규. 2017.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중국학논총』 제56권, 181-200.
- 이문기. 2014. "중국 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국제정치논총』 제55집 3호, 177-209.
- 이성춘·곽채기·이민창. 2012. "중국 전신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경로의 존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3호, 63-88.
- 이준호·정윤길. 2010. "중국의 재정제도 변화과정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2권 4호, 1133-1163.
- 이흥규. 2011. "중국 기업 연구의 또 다른 시각: '역사적 제도주의' 정치학과 '맞물림'의 정치경제." 『현대중국연구』 제12집 2호, 381-436.
- 임운택. 2015. "중국 자본주의의 특성과 발전 전망." 『지역과 세계』 제39권 2호, 105-143.
- 장윤미. 2010. "新관상결합의 정치경제: 중국의 권력엘리트 동맹." 『국제·지역연구』 제19권 3호, 1-35.
- 정규식. 2017. "중국 노동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규식. 2019. 『노동으로 보는 중국』. 서울: 나뭇잎.
- 토마스 텐 브린크. 2016. "장기 활황은 끝났는가?: 중국의 장기성장에 대한 비교제도 분석." 『아시아리뷰』 제6권 1호, 196-223.
- 하연섭. 1999. "역사적 제도주의", 정용덕·권영주·김영수·김종완·배병룡·염재호·최창현·하연섭·오니시 유타카(편),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하연섭. 2006.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제44권 2호, 217-246.
- Hall, P. A. 1986.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ijden, Jeroen van der. 2011. "Institutional Layering: A Review

- of the Use of the Concept.” *Politics*, 31(1), 9-18.
- Ikenberry, G. John. 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219-243.
- Immergut, E. M.. 1998.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s & Society*, 26(1), 5-34.
- Katz H. and Darbishire, O.. 2000. “Converging Divergences: Worldwide Change in Employment Systems.” *Ithaca*, NY: ILR Press/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 Krasner, Stephen. 1984.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1988.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 66-94.
- Locke R. and Kochan T.. 1995. “Apples and oranges compared: contextualised comparisons and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s.” *Politics and Society*, 23: 337-367.
- Locke R. and Kochan T.. 1996. “Conclusion: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A cross-national review of evidence.” In R. Locke, T. Kochan and M. Piore(eds), *Employment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359-384.
- Thelen, K. and S. Steven.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e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xler F., Blaschke S. and Kittel B.. 2001. “*National Labour Relations in Internationalised Markets: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s, Change and Perform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illes, N., Gaby Ramia and Russell D. Lansbury. 2003.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dustrial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1(4) 617-637.

Zeng, J.. 2014.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鲍晓鸣. 2017. 嵌入历史与社会情境的劳动关系制度. 中国人力资源开发, 第146-153页.

王紹光. 2007. 國家能力的重要一環: 濡化能力. <http://ww2.usc.cuhk.edu.hk/PaperCollection/Details.aspx?id=6785>(검색일: 2021/04/13).

투고일 : 2021년 8월 28일 . 심사일 : 2021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0월 13일
---

\* 이유태는 Boston University, DB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캡스톤디자인』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디지털시대의 한국 규제제도의 재설계: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 동기화와 스마트 레그테크” 등이 있다.

## &lt;Abstract&gt;

**A Study on Change in the Labor System in China  
: Focus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Lee, You-Ta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labor system in China and the cause of the exclusion of workers from power by apply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China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the labor law system and gradual changes in the Hukou system. This caused neo-liberaliz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dualization of labor market, which had a disadvantage to workers. Sinification of Marxism played a role in promoting the smooth acceptance of institutional changes that are unfavorable to workers. Although China changed the system in an unreasonable direction to workers, the ideological framework that such system change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and effect on China's growth and development has played a role as a catalyst for change by allowing workers to accept institutional changes. As such, changes in each system have affected the weakening of workers' power, which has led to workers being excluded from pow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ange of the system in China has influenced the exclusion of worker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if China, which has not achieved the same high growth and employment as before, fails to meet the growth and employment that offset inequality and irrationality, the voice of Chinese workers may grow.

**Keywords** : Chin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Labor System, Hukou System, Sinification of Marxism.